

감정인식 로봇, 페퍼

외로운 노인분들
반려로봇 하나
입양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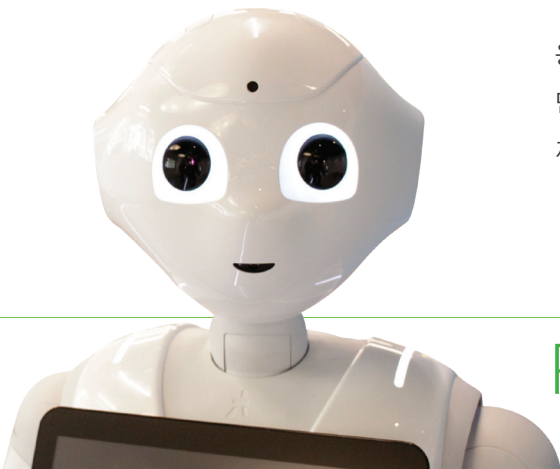
‘페퍼(Pepper)’는 세계 최초의 감정을 가진 로봇이다. 단순히 인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인간과 교감하는 ‘인공지능형(AI) 감정인식 로봇’이다.

페퍼는 스스로 알아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성향 등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 정보를 이용해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놀라운 것은 여러 사람이 구입한 각 ‘페퍼’들끼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듯이 ‘페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진다.



이 신기한 로봇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병합한 프랑스 로봇기업 ‘알데바란’이 만들었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본격 시판되기 시작해 19만8천 엔(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지금 바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페퍼가 더 대중화된다면 이제 외로운 노인들이나 1인가구들은 양육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결코 귀찮을 일은 없는 이 페퍼를 입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반려로봇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법무사](#)



PEPPER